

진술조서

성명 : 유다영

주민등록번호 : 920627-2850012

직업 : 주부

주거 : 울산 울주군 대안3길 46 , 106동 2102호 (온양읍,온양일동미라주더스타)

등록기준지 : 울산 중구 교동 257

직장주소 :

연락처 : 자택전화 휴대전화 010-2668-7732

 직장전화 전자우편(e-mail)

위의 사람은 피의자 김광록에 대한 강제추행 피의사건에 관하여 2022. 7. 18. 16:40 울산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4팀사무실에 임의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다.

1. 피의자와의 관계

저는 피의자 김광록과 지인 관계에 있습니다.

1. 피의사실과의 관계

저는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자격으로서 출석하였습니다.

이 때 진술의 취지를 더욱 명백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의로 문답하다.

문 : (피해자인 경우) 담당조사관으로부터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 및 지원 정보에 대한 안내서를 교부받고, 가해자로부터 보복범죄 우려 시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받았나요

답 : 네

문 : 유다영 본인이 맞나요

답 : 네 맞습니다.

(이때 진술인으로부터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제출받아 본인 확인 후 사본 별지 첨부하다.)

문 :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답 : 남편 박상운(010-7602-0134), 딸 박새봄(21년생) 저 세식구입니다.

문 : (고소장을 보여주며) 본인이 작성한 고소장이 맞나요

답 : 네 맞습니다.

문 : 고소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답 : 남편의 친구 김광록입니다.

문 : 피고소인 김광록과 어떤 관계인가요

답 : 남편의 고등학교 친구이고, 저랑은 5년 전부터 남편을 통해서 알게된 지인입니다.

문 : 고소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진술하세요

답 : 2022. 7. 8. 저희 집(울산 울주군 온양읍 일동미라주 106동 2102호)에서 집들이가 있어서 오후 7시에 친구 김광록, 천강호, 김윤제 총 3명의 친구들이 저희 집에 놀러왔습니다. 다같이 저녁도 먹고 술도 마시고 놀다가 남편이 먼저 술에 취해 잠을 잤고 2022. 7. 9. 01:00경에 친구 3명을 다 집으로 돌려 보내면서 배웅을 하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김광록이 남편 휴대폰으로 전화가 와서 남편이 잠을 자고 있어서 제가 대신 받았습니다. 김광록이 원래 근처 친구 집에서 자려고 했는데 그 친구가 연락이 안되어서 저희 집에서 조금만 더 있다가 가도 되겠냐고 물었고 제가 동의를 하고 저희 집으로 다시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시간은 01:20경~02:00경 사이입니다. 김광록이 저희 집에 들어오자마자 소파에 앉았고 저는 김광록에게 “시간 되면 알아서 가라.” 라고 말하고 저는 아기방에 가서 아기를 재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김광록이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라고 말하면서 아기방에 들어와서 저의 뒤에서 저의 등을 톡톡치면서 저의 어깨를 잡아서 뒤로 눕혔습니다. 제가 앉아 있는 아기를 허리를 굽힌 자세로 안으면서 재우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김광록이 저의 어깨를 잡아 당기면서 눕혔고 저는 누운 자세, 김광록은 앉은 자세로 저에게 입맞춤을 하면서 혀를 집어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손인지는 기억이 안나는데 저의 왼쪽 가슴을 주물렀습니다. 그리고 바로 김광록이 저의 가슴을 만진 손으로 저의 팬티에 손을 넣어서 음부속으로 손가락을 집어 넣었습니다.

문 : 당시 진술인은 어떠한 저항을 하였나요

답 : 입맞춤을 하면서 가슴을 만질때는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김광록이 손가락을 음부속에 넣을 때 제가 바로 정신차리고 김광록 손을 뿌리치면서 바닥에 뒤돌아 누웠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제 아기가 혼자 앉아서 놓고 있어서 제가 바로 아기를 안고 김광록에게 “내 집에서 나가라.”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문 : 강제추행 당시 김광록이 했던 말에 대해서 모두 말해보세요

답 : 그 당시에는 입맞춤을 한다고 아무말도 안했고 그 전에 제가 있는 아기방에 들어오면서 뭐라고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납니다. 그리고 제가 김광록을 뿌리쳤을 때 김광록이 저에게 계속 “다영아. 다영아.” 라고 불렀고 저는 계속 내 집에서 나가라고만 했습니다.

문 : 강제추행 피해가 끝이 난 후 있었던 일에 대해 모두 말해보세요

답 : 제가 한손으로 아기를 안고 김광록의 등을 떠밀면서 빨리 나가라고 했고 현관문에서 김광록이 저에게 “이제 일년 동안 나 안보겠네.” 라는 말을 했고 현관문을 나가면서 저에게 “의외로 가슴이 크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집에서 나갔는데 그때 시간이 오전 03:00경 이었습니다.

문 : 그 당시 남편은 어디에서 잠을 자고 있었나요

답 : 안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문 : 남편의 친구에게 강제추행을 당하였는데 잠을 자고 있는 남편을 깨우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답 : 큰 이유는 없었는데 저도 술을 마신 상태고 몸에 힘이 없는 상태여서 상황 판단이 잘 안되었던 것 같습니다.

문 : 그럼 남편에게 최초로 이 사건을 알린 일시는 언제인가요

답 : 그 일이 있고 나서 16일에 말을 했습니다.

문 : 늦어진 이유는요

답 : 제가 당시 성적 수치심을 많이 느껴서 누구에게 바로 말을 할 수가 없었고, 남편의 성격이 불같아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남편이 바로 화를 내면서 친구와 싸우게 될까봐 말하기를 꺼렸습니다.

문 : 말을 하게 된 경위는요

답 : 혼자 고민하다가 도저히 혼자로는 해결이 안될 것 같아서 제 친여동생 (010-5645-8532)에게 말을 했는데 여동생이 형부에게 말을 해야할 것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말을 안하면 남편은 김광록을 친구로 계속 만날 거잖아요. 그 사실이 너무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문 : 사건 당시 김광록과 진술인의 주취 상태는요

답 : 저는 평소 주량보다 조금 더 많이 마셔서 그런 상황에서 이성적으로 대처를 잘 못했고, 김광록은 제가 보기에는 술은 같이 많이 마셨는데 얼굴에 티는 많이 안났던 것 같습니다.

문 : 그 당시 기분이 어떠했나요

답 : 당연히 성적 수치심을 많이 느꼈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 앞에서 제가 그런

일을 당하게 돼서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문 : 김광록의 처벌을 원하나요

답 : 네 원합니다.

문 : 더 할말 있나요

답 : 그 사람은 제가 자기에게 먼저 유혹을 했다, 제가 먼저 자기를 건드리고 만졌
다, 그래서 자기가 저를 만졌다고 말을 하는데 저는 그런 적이 전혀 없습니
다.

문 : 그럼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진술인의 진술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
폴리그래프 검사에 동의하나요

답 : 네 동의합니다.

문 : 추가적으로 서면 의견이나 제출할 서류가 있나요

답 : 아네

문 : 위 진술은 모두 사실인가요

답 : 네

문 : 위 내용은 모두 진술한대로 작성되어 있나요

답 : 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 진술한 대로 오거나 증감·변경
할 것이 없다고 말하므로 서명(기명날인)하게 하다.

진술자


유다영

2022. 7. 18.

사법경찰리 순경

설종인

수사 과정 확인서

구 분	내 용
1. 조사 장소 도착시각	2022. 7. 18. 16:35
2. 조사 시작시각 및 종료시각	<input type="checkbox"/> 시작시각 : 2022. 7. 18. 16:40 <input type="checkbox"/> 종료시각 : 2022. 7. 18. 17:15
3. 조서열람 시작시각 및 종료시각	<input type="checkbox"/> 시작시각 : 2022. 7. 18. 17:17 <input type="checkbox"/> 종료시각 : 2022. 7. 18. 17:21
4. 기타 조사과정 진행경과 확인에 필요한 사항	없음
5. 조사과정 기재사항에 대한 이의 제기나 의견진술 여부 및 그 내용	없음
2022. 7. 18. 사법경찰리 순경 설종인은 유다영을 조사한 후,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유다영으로부터 확인받음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flex-end;"> <div style="text-align: center;"> 확 인 자 사법경찰리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유다영 순경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설종인 </div> </div>	